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영화제 주요 상영작 발표

사회문제 쟁점화한 다큐영화 선보인다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는 27일 영화제의 주요 상영작을 발표했다.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4월 27일~5월 6일)는 58개국 229편(장편 179편, 단편 50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이는 지난해 보다 18편 증가했다.

올해 영화제는 표현의 자유라는 기초를 이어가되 그간 직간접적으로 금기시 돼 왔던 정치·경제·사회적 이슈들을 쟁점화한 다큐멘터리 영화들을 과감하게 상영함으로써 '영화 표현의 해방구'를 자처한다.

58개국 장·단편 229편 상영
개막작 '우리는 같은 꿈 꾸다'
폐막작 '서바이벌 패밀리' 확정

시네마 프로젝트, 올해 투자작
3편 모두 한국영화로 선정



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 상영작 발표 기자회견에서 27일 오전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열린 가운데 조직위원장이인 김승수 전주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혁신적인 주제와 스타일, 발칙한 상상력, 대담한 표현으로 논쟁적인 화두를 던지는 작품들을 소개하는 '프론트라인' 섹션 신설이 그 맥락을 함께 한다.

개막작은 일디코 엔에디 감독의 <우리는 같은 꿈을 꾸다: 몸과 영혼>가 선정됐다. 감독은 18년 만에 발표한 이 영화로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을 수상했다.

몸은 자랐지만 아직도 미숙해 보이는 여 주인공 마리아와 세상의 권태로움을 짊어진 것처럼 이미 농익은 정신을 지녔지만 팔이 불편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는 몸과 영혼의 불균형 속에 타인을 찾아 가는 진실의 여정을 보여준다.

폐막작은 야구치 시노부 감독의 최신판 '서바이벌 패밀리'가 상영된다. 감독은 <워터보이즈>와 <스윙걸즈>를 통해 대중적인 코미디 장르의 감각을 자유롭게 구사하는 감독으로 각광을 받았다.

영화는 동경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혼돈을 다룬 재난영화지만 경쾌하면서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진다. 갑작스러운 전기 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도시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아버지는 가족들을 이끌고 자신의 고향에 갈 계획을 세우지만 녹록치 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의 입간편적인 전주 시네마프로젝트는 2017투자작은 3편 모두 한국영화로 선정됐다.

이는 한국 독립·대안영화가 고사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창재 감독의 <N 프로젝트>(가제)와 김양희 감독의 <시인의 사랑>, 김대환 감독의 <초행>이 독립영화의 부흥을 꿈꾸게 한다.

<N 프로젝트>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삶을 조망하는 것으로 지난해 <자백>에 이어 다시 한번 정치 소재 다큐멘터리의 파급력을 기대하게 하는 작품이다. <시인의 사랑>은 예술의 초월성과 삶의 범속성을 어느 시인 부부의 일상적 삶에 극적 대비로 녹여 냈으며 <초행>은 불안한 가족 서사를 풍경의 상처에 각인시켜 승화시킬 영화언어의 잠재력에 많은 기대를 걸게 하는 작품이다.

이외에도 영화제는 개최 시기의 특성상 징검다리 연휴로 관객들이 몰릴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초청작과 상영회차를 늘린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날에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테이를 두 차례에 걸쳐 상영한다.

김승수 조직위원장은 "전주국제영화제는 규모에서는 작은 영화제이지만, 표현의 크기에서 만큼은 그 어떤 영화제 보다 깊고 넓은 영화제로 자리매김 해왔다"고 했다. 이어 "영화제가 가지는 정체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영화제를 즐기지 못하는 점도 있다며 이를 위한 보완점 개선 및 영화제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정읍시립미술관, 전북 1종으로 등록

이미지 향상에 기여할 듯

정읍시립미술관(이하 시립미술관)이 최근 전라북도 미술관 등록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됐다.

시에 따르면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학예사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10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어야 하며 수장고와 연구실, 자료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시립미술관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모두 갖추었으며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됐는데, 특히 정읍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 작가들과 함께 이룬 성과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시는 "시설과 인력 조건은 갖췄으나 1종 등록에 필요한 100점의 소장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역 미술인들과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들이 작품을 기증해 줌으로써 미술관 등록 절차를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등록으로 다른 지역 미술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지역 작가의 작품 소장 및 전시 지원 확대, 운



영 경비 보조지원 그리고 정읍시립미술관의 위상과 이미지를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읍시 시기 4월에 위치하고 있는 정읍시립미술관은 2015년 10월 24일 개관해 올해로 개관 2년차를 맞고 있다.

총 부지는 3884㎡이며, 전시실 규모는 638㎡이다.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현재 소장품 기획 전시인 '봄을 보다'전을 갖고 있으며 이번 기획전시와 아울러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전시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 063-539-6420)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통문화전당, 현장학습체험 '오감'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2017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타악연희원 아취(대표 박종대)와 공동으로 현장학습체험 프로그램 '오감'을 진행한다.

감탄사 '오(Oh)'와 한자 '느낌 감(感)'의 합성으로 명명한 이번 프로그램은 무대발표라는 새로운 경험과 연주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얻는 경험, 즉 '성공경험'이란 새로운 깨달음을 선사하도록 기획됐다.

오감은 4월부터 7월까지 선착순으로 모집된 단체를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운영된다.

프로그램은 전당 공연장 상주단체로 선정된 (사)타악연희원 아취의 난타 퍼포먼스 공연(60분), 난타체험(30분), 발표회(30분) 등 총 120분 간 진행된다.

참가방법은 사전신청 접수를 하면 되고,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개 단체를 오는 31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단체신청의 경우 원하는 현장학습 날짜에 맞춰 전당과 조율해 정하면 된다. 참가비는 1인당 만원.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선임직 이사 30일까지 모집

(재)완주문화재단 이사장(박성일)은 완주의 문화예술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선임직 이사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모자격은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자로 임기는 2년이며 연임가능하다.

업무는 문화재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 참여로 재단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향 제시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9일~30일까지며 원서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단 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한 경우에 한한다.

채용과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재)완주문화재단 기획경영팀 담당자 262-3955 및 홈페이지(www.wfa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공연 & 전시

완주 스테마박물관 '신들의 음료, 와인' 6월25일까지

완주군 대한민국 스테마박물관에서 건강을 담은 세련된 술 와인을 만나볼 수 있는 일곱 번째 기획전시인 '신들의 음료, 와인'이 오는 6월 25일까지 열린다.

와인은 포도나 포도즙을 발효시켜 만든 알코올 음료로, 자연이 만든 천연의 술을 유연히 인간이 맛보고 따라 만들게 된 인류 최초의 술이다.

이번 전시는 서구 문화 속에 녹아든 와인,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와인 시장의 두 축인 구세계와 신세계와 와인 등 총 네 마당으로 기획됨으로써, 와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줄 수 있게끔 구성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벚꽃비 내리는 정읍!
향愛 물들다!

정읍 벚꽃축제

2017.4.7(금) ~ 4.12(수) 6일간
정읍천변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7(금) 18: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7(금) ~ 4.9(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키다리 배에로 풍선마임, 석고마임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존, 봄노래 존, 로맨틱 포토존

벚꽃 야간 경관 조명 4.1(토) ~ 4.16(일)
제56회 전라예술제 4.8(토) ~ 4.12(수)
제13회 자생화전시회·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4.7(금) ~ 4.12(수)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7(금) ~ 4.12(수)

차량통제안내 : 4.7(금) 22:00 ~ 4.9(일) 22:00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 정주교 ~ 정동교(1.2km)

초대가수 공연

 송대관	 김용임
 마틸다 MATILDA	 불독

정주/조연비/오대성/양재동

주최·주관 | 정읍시
문의처 | 정읍시청 관광개발과 539-5203